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을 찾는 마음, 즉 종교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파요.  
생각하는 이성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 안에만 아니라  
만드신 만물에도 나타나 있어요.  
아침이면 떠오르는 햇빛...  
작은 씨를 뿌리면 예쁜 꽃이 피어나고...  
밤이 있어서 쉴 수 있고, 너무 컴컴하지 않도록 달이 뜨고...  
만물은 신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

###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  
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그가 **만 드 신**   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니 (21)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  
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8)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안 계시니 허망해졌어요. (21)

허망한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요. (28)

더러운 정욕 (24), 동성애 (26-27)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29-31)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함 (32)



갓가지 나타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28절에서 찾아보아요.

마 음 에 \_\_\_\_\_

**예수사랑 전도축제/10월 15일**

전도할 친구 \_\_\_\_\_